

사과·배 40% 싸진다...정부 물가안정 예산 투입

배추·무 추가 비축...오이 등 시설채소 출하비용 지원 내달 3일까지 '반값' 수산대전...한우·한돈 할인 행사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일, 시설채소 등의 출하 비용을 지원하고 유통사의 할인 판매를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품목별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 영향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 일부 과일, 시설채소 등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하순 기준 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9301원으로 1년 전보다 27.4% 올랐고, 배는 10개

에 4만455원으로 39.1% 비싸다.

토마토는 1kg에 8691원, 배추는 포기당 3738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8.5%, 18.4% 비싸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공급을 관리하고 유통사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무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배추 2000t(톤), 무 6000t을 추가로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해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

사과, 배 판매 촉진에 나선다.

농협하나로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과 400t과 배 100t을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달부터는 다음 달 1~3일 사과 150t을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과 200t 판촉 행사를 열고, 홈플러스는 다음 달 1~6일 사과 50t, 배 10t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수입 과일 판매 수요량을 파악해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3일자로 대형유통업체에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예산 166억원을 투입해 각 유통사가 사과, 배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함께 다음 달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인 '소(牛)프라이즈'를 열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등심, 국거리, 불고기류 등을 평시

보다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한돈 할인 행사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전국 마트 등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20~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통업체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18개 마트에서는 오는 28일까지, 27개 온라인몰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오징어, 참조기를 할인 판매하는 '깜짝 반값 특별전'을 진행한다. 홈플러스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차 공장을 군공항 부지로? 상의회장 후보 공약 '뒷말 무성'

한상원 후보, 경쟁자 출마 회견에 맞서...기아·상의 회원들 "터무니없는 소리" 비판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 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의 공약이 논란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광주군(軍)공항 부지로 확장, 이전하겠다는 내용인데, 답보 상태의 광주군 공항 문제를 상의 회장 한 사람이 나서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상의 회장 후보자인 한상원(주)회장은 지난 26일 광주상의 임원실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광천동 34만평 부지의 기아차 광주공장을 군 공항 이전 부지나 인근에 100만평 부지를 제공해 연간 100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 회장은 광주에 젊은 세대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기아차 광주공

장 이전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한 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논란이 일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터무니 없는 소리', '준비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흘러 나왔다.

당장 당·정·청과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고 있음에도 공회전만 거듭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당사자인 기아 측도 한 회장의 발언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아 측은 "공장 이전은 검토해 본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종료 후 광주상의가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한 회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상의는 "기아차 광주공장 100만대 생산 관련 내용은 한상원 회장의 사견으로 향후 회장 당

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급적 관련 내용은 제외해 주시길 바란다는 한 회장 측의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했다.

한 회장의 기아차 광주공장 이전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갑작스런 출마 기자회견에 맞서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쟁 과열 속해프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 후보인 김보근 DK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26일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밝혔다. 이후 23일 오후께 한 회장도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준비 기한이 부족했던 한 회장은 공약 구상에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다.

광주상의 한 회원은 "그동안 출마 기자회견은 전례가 없었던 터라, 한 회장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가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공약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금융버스 광양 중마시장을 가다

'와(Wa)요버스' 대출·컨설팅 재무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양시 중마 시장에서 전남형 상생 금융지원 모델 '가드림' 금융버스 운영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가드림'은 지역 곳곳에 광주은행의 이동점포 '와(Wa)요버스'를 운영하며,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달 광주은행과 전남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시행했다.

특히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컨설팅·재무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강진군 마량면과 고흥군 녹동에서 두 차례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날 광양시 '가드림' 금융버스 운영 행사에서는 정인화광양시장이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

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 상담을 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이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향후 정부 및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자 지원 사업 등 금융서비스들과 연계해 '가드림'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금융 편의성 제공에 노력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미국 시장 겨냥 가전제품 선보인다

라스베이거스 'KBIS 2024' 참여 AI 기능 강화 '비스포크' 제품 등

삼성전자는 27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4(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4)'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가전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

KBIS는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60년 역사의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럭셔리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데이코(Dacor)'의 빌트인 라인업과 AI 기능이 강화된 '비스포크(BESPOKE)' 가전 신제품을 소개한다.

데이코는 모던한 분위기의 '컨템포러리(Contemporary)' 라인업과 클래식함에 최신 트렌드를 더한 '트랜지셔널(Transitional)' 라인 두 가지로 구성됐다.

올해는 트렌드를 반영해 주방 가구장,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 등의 하부에 냉장고와 와인냉장고를 도입한다.

특히 41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언더카운터 와인냉장고는 자외선(UV)을 차단하는 3중 글라



스 도어를 적용해 와인 고유의 맛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고, 내부에는 터널 라이팅 조명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강화된 비스포크 가전도 선보인다.

카메라를 통해 보관 중인 식재료의 리스트를 만

들어주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이 특징인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 AI로 바다 환경에 맞춰 청소하고 있는 '비스포크 제트 봇 콤파스 AI 스타', AI 맞춤형으로 최적의 세탁·건조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비스포크 AI 콤파스' 등이 대표적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섬유역본부 제2기 상생협력위원회 출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27일 '제2기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20명 안팎의 수자원·물관리·감동관리(법조·언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다. 2021년 제1기로 발족한 이래 물관리종합계획, 경영관리 등 총 19건의 물관리 현안 정책제언과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

제2기 위원회는 21명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다양하고 객관적인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물전문가, 시민·환경, 산업계 인사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통합물관리비전포럼운영위원장)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년의 임기 동안 기후위기로 복잡해지는 물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인호 본부장은 "상생협력위원회는 날이 깊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이슈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의 기반의 거버넌스다"며 "우리 유역이 직면한 물관리 이슈 전반에 대해 소통과 협업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사회적 약자에 기부금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27일 전남경찰청을 찾아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남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지원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정재현 본부장과 박정보 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전남지역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재현 본부장은 "범죄 피해로 힘든 분들의 상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며 "앞으로도 전남본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동체 구성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5.05(-22.03)
↓ 코스닥	853.75(-13.65)
↑ 금리(국고채 3년)	3.364(+0.024)
↓ 환율(USD)	1331.00(-0.10)